

Cultural Missions and Ideological Resources of Japanese Colonialism in Korea

李喆雨

國文抄錄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그간의 일본식민주의에 대한 연구는 일제의 억압과 착취 및 이에 대한 우리 민족의 총체적 대항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어 왔다. 식민지적 과거에 대한 否定이라는 견지에서 그와같은 문제의식이 요청되었던 것은 당연하였다. 반면 억압과 착취의 실태를 밝혀내는 데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 비해 일제 식민주의의 정신적 배경과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관심이 주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제의 착취적 동기는 언제나 ‘前提’되어왔을 뿐이며 일본제국주의의 지배행위는 항상 억압과 착취를 위한 목적합리적 행위로 간주되어 왔을 뿐이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분명 본국의 군사적·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면밀히 계획되고 집행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떠한 지배도 물리적 폭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表象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表象은 단순히 계산된 欺瞞일 수만은 없다. 일제의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는 지배행위자들의 독특한 신념체계에 기초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일제의 식민주의 이데올로기가 前戰 일본인의 복합적 세계관과 自我像의 연장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그 세계관에 내재된 긴장과 자기분열의 계기가 일본의 국가와 사회가 처한 상황의 변화에 대한 일본인들의 대응과정에서 어떻게 표출되어 왔는가를 간략히 추적하고자 했다.

이 글에서는 일본식민주의의 특질을 소개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일본

식민주의의 특질은 아시아 국가로서 서양과의 불평등조약을 통해 세계체제에 입문하였다는 독특한 배경과 일제의 지배 대상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상대적인 문화적 유사성을 가진 민족들이었다는 점에 대한 일제 스스로의 인식에서 비롯된다. 일제가 자신의 제국주의적 팽창에 부여한 역사적·문화적 사명과 정당화의 논리는 일제와 피지배민족이 가지는 독특한 관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明治 이래 일본인 사이에 형성된 특유의 세계관과 自我像에 의해 구성되었다. 일본인들의 세계관과 自我像은 서구적인 것·도입된 것과 아시아적인 것·일본 고유의 것 사이의 계속되는 긴장과 갈등으로 점철되었다. 일본인들은 이 두가지 문화요소를 구별하고 양자의 관계규정을 모색해 왔다. 그러한 관계규정은 일본의 전략적 위치에 따라 끊임없이 불안정하게 진행되어 왔다.

서구식 근대화를 통해 富國強兵에 성공한 일제는 한 때 19세기 서구제국주의의 일반화된 정당화 논리인 ‘문명의 전파’를 스스로의 사명으로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지리적·문화적 근접성을 근거로 同化政策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同化政策은 식민지의 법적 지위와 식민지인의 정치적 권리를 둘러싸고 논리적 모순을 노출하였다. 이를 둘러싼 논의는 同化政策과 식민지의 문화적 지위에 대한 해석간에 논리필연적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일제가 ‘전파’하고자 한 ‘문명’의 내용과 그 ‘전파’의 방법은 주로 통제와 규율의 견지에서 이해되었다. 笞刑을 비롯한 억압적 법규는 통제와 질서를 문명의 척도로 생각하면서 문명의 진화정도에 따라 통제의 방식을 달리할 수 밖에 없다는 일제의 사고에 근거하였다.

한편 근대화가 가져온 정치적·사회적 위기와 국제적 환경의 불리한 전개는 서구적 문화요소와 일본적 문화요소간의 새로운 관계규정을 요구하였으며 그것은 후자의 압도적 강조로 귀결되었다. 3·40년대의 일제 식민통치와 대륙팽창은 서구에 대한 ‘아시아의 수호’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개되었다. 30년대의 農村振興運動과 40년대의 國家總動員體制는 일본의 민족적 본질을 지키고 아시아를 이에 맞추어 개조하자는 명분하에 추진되었다.

이 글에서는 문화·이데올로기·세계관을 靜態的 構造가 아닌 過程으로 이해

하였다. 그 과정은 항상 상황에 따른 可變性을 갖는 것이었으며 행위자들의 목적과 이해에 따른 의미의 해석과 굴절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지배세력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적 資源을 선별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일본사회를 규정하고 식민지배를 뒷받침하는 일본인의 세계관이 소수의 의식적인 선택행위만에 의해 형성되었던 것은 아니다. 억압이 극대화되었던 30년대의 체제마저 일본 대중의 암묵적 동의를 기초로 하였다는 지적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일본 대중은 明治 이래의 불안정한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안정화하고 지배민족의 일부로서의 自我를 확립하기 위해 일정한 이데올로기를 자발적으로 수용하였으며 그 수용행위의 연속은 행위의 전략적 계기를 불투명하게 하면서 그 이데올로기를 보다 확고한 패턴으로 구조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 대중 사이에 확립된 이데올로기적 체계머니는 식민지 대중에게까지 확산되지 못하였다. 민족주의가 집단의 實在性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집단이 스스로를 민족으로서 구성하는 自己想像이라고 한다면 장구한 세월을 통해 구조화된 한국인의 自己想像이 가지는 강인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인은 일본인과의 정신적 일체감을 통해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안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식민주의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 바로 그러한 민족을 지배하려 했던 점을 강조하였다.